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엔 전문가, 긴장 완화를 기회로 인권 논의 촉구

제네바(2018년 3월 8일) – 유엔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 가능성이 언급되는 등 남북 관계 개선을 환영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이 기회를 빌어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하길 촉구했다.

“지난 해 유례없이 긴장이 고조되었지만, 단기간에 올림픽 정전을 이끌어내고 함께 올림픽에 참여하는 데 남북 양측이 기울인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특별보고관은 말했다.

“북측과의 협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되며, 또한 인권을 우선 순위에 두고 인권을 안보 상황의 볼모로 삼아서도 안된다고 강조해왔다. 같은 맥락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현재 관계 회복 노력과 동시에 유엔 인권 감시에 전향적으로 돌아서길 촉구한다”

특별보고관은 남북 가족 상봉 행사가 즉시 재개되길 촉구했다. 가족 상봉 행사는 2015년 10월을 마지막으로 개최되지 않았다. 특히 사랑하는 북측 가족과 상봉하고자 이름을 올린 남측 가족 수는 5만 9000명으로, 평균 나이가 81세라는 점에서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

특별보고관은 “일년 전 인권이사회에서 긴장 고조와는 별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변화로 생긴 대단히 중요한 기회를 활용하는 동시에 인권을 우선 순위에 두길 재차 강조한다.”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표현, 이동 및 정보 접근의 자유가 제한되고, 식량 배급 등 기본적인 필요(needs)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등 인권 침해 양상이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미결구금 시 여성이 겪는 학대 등 구금 시설 내 학대도 언급했다. 또한 중국에서 아동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가 지속적으로 강제 송환되는 양상도 지적했다.

“국제공동체는 앞서 언급한 주요 인권 사안을 의제에 올릴 책임이 있다. 대화의 동력은 마련되었으며, 구체적인 결과를 낳을만한 유의미한 인권 관련 대화를 나누도록 해야 한다. 향후 논의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거나 혹은 기술 지원을 통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고 특별보고관은 말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에 전하려는 주요 메시지는 언제나 일관되었다. 북 주민의 안녕을 도모하는 공동 의제를 우리 모두 추구한다는 점이다”라고 특별보고관은 말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은 자국 내 인권을 살피는 특별보고관 위임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지난 한 해 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다시 참여하도록 조치를 취한 점을 상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이어나가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별보고관은 3월 12일 오전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어서 당일 오전 11시 30분 팔레테네시옹(Palais des Nations, Press Room 3)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 특별보고관 보고서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HRC/37/69](#))

끝

토마스 오헤나 퀴타나(아르헨티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2016 년 유엔 인권이사회 임명을 받았다. 인권 분야에서 20 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변호사로 미주인권위원회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시절 아동 납치 문제를 다룬 비정부기구 마요 광장의 어머니들(Abuelas de Plaza de Mayo) 대표로도 활동했다. 볼리비아 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 프로그램을 총괄한 바 있으며, 2008 년부터 2014 년까지 미얀마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직을 역임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제도](#)로,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 제도 하에서 가장 많은 수의 독립전문가가 참여한다. 특별절차는 특정국가 인권 또는 전세계에 적용하는 특정 인권 주제를 다루기 위해 인권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특별절차 전문가는 유엔 직원 신분이 아니고 무보수로 자발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여타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개인 역량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추가 정보 및 언론사 문의는 아래를 참조해주시요.

Olga Nakajo (+41 22 928/ onakajo@ohchr.org)

기타 유엔 독립전문가 관련 언론사 문의는 아래 언론 부서(Media Unit) 담당자로 문의해 주십시오.

Jeremy Laurence (+ 41 22 917 9383 / jlaurence@ohchr.org)

본 보도자료는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채택 70 주년의 해입니다. 1948 년 12 월 10 일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역사상 가장 많은 언어인 500 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는 원칙에 근거를 두고 전세계인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70 주년을 맞이하여 세계인권선언의 위대함과 영향력을 재차 상기하고 세계인권선언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 퇴색하지 않도록 전세계인이 인권 옹호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Stand Up for Human Rights: www.standup4humanrights.org